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I am only one,

But still I am one.

I cannot do everything,

But still I can do something;

And because I cannot do everything,

I will not refuse to do the something that I can do.

(Edward Everett Hale)

나는 단지 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나는 그 한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없으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입니다. (에드워드 에버릿 헤일)

2014년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머리 위에 내리쬐는 따스한 햇
별과 얼굴을 스치는 바람이 상쾌합니다. 거리 곳곳에는 나름대로
자신이 가진 멋진 모습을 선사하기 위하여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
를 하는 꽃과 나무들이 그리고 이미 활짝 핀 꽃들이 눈길을 끌며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마치 나의 멋진 모습을 좀 봐주고 가시라고
속삭이듯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 출근길 활짝 핀 벚꽃에 취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스마트폰으로 그 모습을 담았답니다. 뽐내고 자랑하고 싶은 것은 꽃과 나무뿐이 아니지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길거리에는 벌써 명함들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최고의 꽃이라고 자랑하면서...

미국 출신의 작가이며 목사였던 에드워드 에버릿 헤일(1822~1909)의 말대로 우리는 모두 각자 단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많은 일을 했든 하지 못했든 상관없이 여전히 그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멋진 모습을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 선사할 준비를 하고 있나요? 어떤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나요? 2014년 청마의 해를 맞이하였다고 마음 설레며 계획했던 일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벌써 1년의 4분의 1이 지나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시간이 지난 것 사실이지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앞에는 1년의 4분의 3이 남아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자신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